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6월 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4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: 다자통상협력과 김진 과장(044-203-5640), 김보연 사무관(044-203-5644)
세계무역기구과 김호철 과장(044-203-5630), 고상미 서기관(044-203-5631)

OECD, 무역원활화협정 연내 발효 촉구

(경제협력개발기구)

-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각료이사회 참석 -

□ **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**은 6. 3. (수) ~ 4. (목)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**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각료이사회**에 참석했다.

○ 아울러, 동 회의 계기에 개최된 세계무역기구(WTO) **통상장관회의와 복수국간서비스협정(TISA) 비공식 회의에 참가**하였으며, 차기 국제에너지기구(IEA) 사무총장, 영국 무역투자국무상 등과 양자회담을 했다.

《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》

□ **'무역과 투자의 결합'**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각료이사회 무역세션에 참석한 회원국 각료들은 세계교역 증대를 위해 **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**했다.

□ 문 차관은 **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무역제한을 철폐**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 공동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

○ 통신, 금융, 물류 등과 같이 국가간 교역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역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.

○ 또한,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(WTO) 등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통합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.

○ 아울러, **'저탄소경제를 위한 투자'** 논의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**에너지자립섬,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소개**했다.

* 에너지자립섬 : 섬 지역의 디젤 발전소를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(ESS: Energy Storage System)를 결합한 친환경에너지로 대체

* 에너지저장장치(ESS, Energy Storage System) :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(배터리 등)에 저장·방출하여 전력품질 향상, 전력피크 저감 등으로 사용

《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》

□ 문 차관은 금번 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**세계무역기구(WTO) 비공식 통상장관회의*에 참석**, 도하개발아젠다(DDA) 작업계획 수립 현황 및 제10차 세계무역기구(WTO) 각료회의(2015.12.15~18, 케냐 나이로비)의 기대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.

* Informal Gathering of WTO Trade Ministers : 매년 OECD 각료회의 계기에 호주 통상장관 주최로 개최(금년에는 10차 각료회의 개최국인 케냐 공동주최)

○ 동 회의에 참석한 30여개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을 위해 **도하개발아젠다(DDA) 작업계획 수립, 무역원활화협정 발효, 복수국간 협상(서비스, 정보기술, 환경상품) 진전** 등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, 이를 위한 각 국의 협조와 노력을 촉구했다.

○ 이에, 문 차관은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원활화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이행, 정보기술(ITA) 확대협상 타결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의지를 재확인 했다.

《복수국간서비스협정 비공식회의》

□ 문 차관은 금번 각료회의 계기에 미국이 주최한 **'복수국간서비스 협정(TISA) 비공식 회의'에 참석**하여 금년 7월 중간점검을 앞두고 동 협상을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○ 특히, 7월 중간점검 회의가 향후 협상 모멘텀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, 동 협상결과가 다자통상체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《기타 양자면담》

□ 문 차관은 **파티 비롤 차기 국제에너지기구(IEA) 사무총장**과 면담을 갖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역할 확대방안, 금년 각료회의 주요의제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○ 또한 **프란시스 모드 신임 영국 무역·투자국무상**과 면담을 갖고 향후 한국-영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김보연 사무관(☎ 044-203-5642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